Hanouri Church

기쁨의 나라 말씀 나눔 (학부모 교안)

4월 19일 (주일) 예배 말씀 (열왕기상 8:35-43)

말씀 이야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재앙과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가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전염병같은 재앙과 벌을 없애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크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나눔)

1. 이 기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나무나 곡식이 자랄 수 없어요.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수 없어요.
물과 음식을 구할 수가 없게 돼요.

2.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해요.

3.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없애 주실 거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시기도 하시지만 엄하게 대하시며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으시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처럼 말이죠.^^
그 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요.
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잘못할 때가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